



미 증시, 금리 상승, 애플 악재 등으로 나스닥 중심 약세

미국 증시 리뷰

2일(화) 미국 증시는 연말 밸리에 대한 부담 속 경제지표 부진, 미 국채금리 및 유가 상승, 애플 투자 의견 하향 및 ASML 중국 수출 허가 취소 등이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며 혼조세 마감 (다우 +0.07%, S&P500 -0.57%, 나스닥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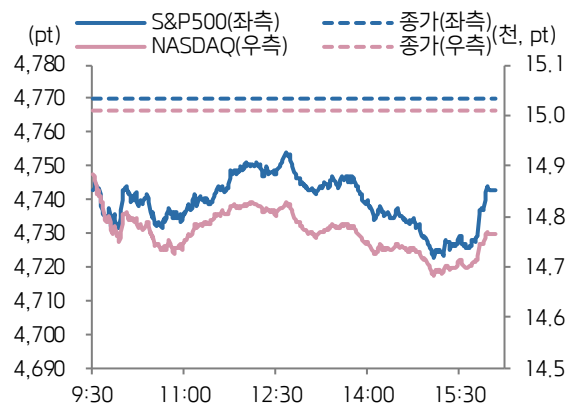
미국 S&P 글로벌 12월 제조업 PMI는 47.9(예상 48.2, 전월 49.4) 기록하며 부진. 중국 12월 차이신 PMI는 50.8(예상 50.4, 전월 50.7)으로 2개월 연속 확장국면, 4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집계측은 생산과 신규수주의 증가로 전망은 개선되고 있지만 높은 실업률이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고 기업들은 채용, 원자재 구매, 재고 관리 등에서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를 표명. 12월 31일에 발표된 중국의 공식 제조업 PMI는 49.0(예상 49.6, 전월 49.4)로 3개월 연속 위축 되면서 6개월만에 최저치

FT는 올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금액이 117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갚아나가는 상품이 많아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함. 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재융자를 받아야 하지만 고금리로 인해 대출금리가 두배 이상 상승해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불안 지속.

조 바이든 행정부는 네덜란드 ASML의 심자외선(DUV) 장비의 마지막 중국 수출을 비공식 압박을 통해 틀어막는 등 대중 반도체 견제를 강화. 현지시간 1일, 지난해 말까지 DUV의 중국 수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던 ASML이 노광장비 3대를 중국에 마지막으로 수출하려 했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취소했다는 보도.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화웨이가 자국산 7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프로세서를 스마트폰에 탑재한 후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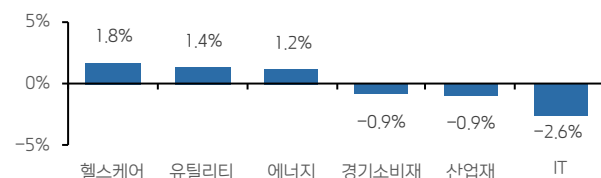
업종별로 헬스케어(+1.8%), 유틸리티(+1.4%), 에너지(+1.2%) 강세, IT(-2.6%), 산업재(-0.9%), 경기소비재(-0.9%) 약세. 애플(-3.58%)은 바클레이즈에서 아이폰 중국 판매 부진을 예상하며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영향으로 약세. 작년말 출시된 아이폰 15가 기대보다 부진한 상태이며 아이폰 16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고, MR 하드셋 등을 포함 하드웨어 카테고리들이 전반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예상. ASML(-5.0%) 중국 수출 취소 보도에 엔비디아(-2.73%), 마이크론(-3.52%), AMD(-5.99%), AMAT(-4.75%) 등 반도체주 동반 약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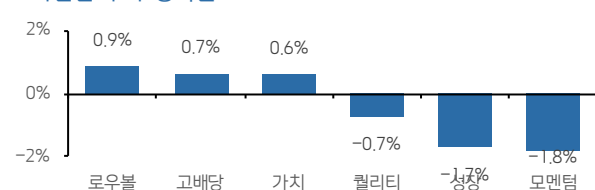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69.81	+0.55%	USD/KRW	1,300.57	+0.74%
코스피 200	360.55	+0.72%	달러 지수	102.24	+0.89%
코스닥	878.93	+1.43%	EUR/USD	1.09	+0.02%
코스닥 150	1,407.90	+1.04%	USD/CNH	7.15	+0.01%
S&P500	4,742.83	-0.57%	USD/JPY	141.96	-0.02%
NASDAQ	14,765.94	-1.63%	채권시장		
다우	37,715.04	+0.07%	국고채 3년	3.245	+10bp
VIX	13.20	+6.02%	국고채 10년	3.305	+13bp
러셀 2000	2,012.80	-0.7%	미국 국채 2년	4.320	+7bp
필라. 반도체	4,023.04	-3.65%	미국 국채 10년	3.929	+5bp
다우 운송	15,774.77	-0.78%	미국 국채 30년	4.071	+4.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512.81	-0.19%	WTI	70.54	-1.55%
MSCI 전세계 지수	727.08	+0.01%	브렌트유	76.02	-1.32%
MSCI DM 지수	3,169.25	+0%	금	2067.6	-0.2%
MSCI EM 지수	1,024.67	+0.09%	은	23.89	-0.83%
MSCI 한국 ETF	64.74	-1.21%	구리	388.05	-0.2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1%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17%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1.0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08.4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금리 상승, 나스닥 약세로 인한 국내 증시 하방 압력 확대 여부 2. 목표주가 하향 발 애플 급락이 국내 관련 밸류체인주에 미치는 영향 3. 전일 국내 증시 수급이 집중된 반도체, 바이오 업종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국내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 긍정적인 출발했지만, 미국 증시에서는 나스닥을 중심으로 조정을 맞으면서 상반된 출발을 하게 된 상황. 이는 지난해 나스닥이 여타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등세를 기록한데 따른 기술적 및 심리적인 반대급부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매크로 상 주요국 증시 강세의 원동력이었던 금리의 급격한 되돌림이 발생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

여전히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인하 횟수(3 회)와 시장이 생각하는 금리인하 횟수(6 회)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당분간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증시에도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 메인 변곡점은 1 월 FOMC 겹치지만, 4 일(목) 12 월 FOMC 의사록과 5 일(금) 12 월 비농업부문 고용 결과가 이 같은 분위기를 다시 긍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1 차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 그 전까지 한국이나 미국 증시 모두 시장 참여자들이 지수 방향성 베팅보다는 개별 업종 내 재료들에 주목하면서 종목 장세가 전개될 전망.

전일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 급등, 주중 매크로 이벤트를 둘러싼 대기심리에도, 반도체 등 12 월 수출 호조, 셀트리온의 합병 시너지 기대, 금투세 폐지 기대감 등으로 반도체,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연출하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0.6%, 코스닥 +1.4%).

금일에는 지난 2 거래일 연속 강세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속 미국 10 년물 금리 급등(3.9%대 진입), 나스닥 중심의 미국 증시 조정, 원/달러 환율 급등(역외 +9 원) 등 부정적인 대외 환경으로 인해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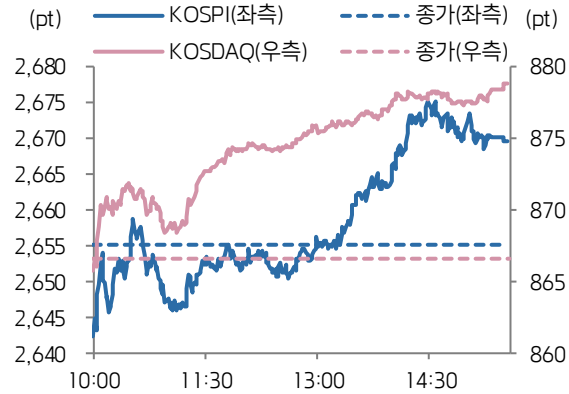
업종 관점에서는 애플 밸류체인, 반도체주들의 주가 변화에 주목할 필요. 애플(-3.6%)은 외사 IB 에서 아이폰 15 포함 주력제품의 중국 시장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하향함에 따라 급락한 만큼 금일 국내 증시에도 관련 밸류체인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를 대비. 전일 국내 증시에서 수급이 집중되며 대장주 역할을 했던 반도체 업종의 경우, 네덜란드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빌미로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급락했다는 점이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

한편, 전일자 기준으로 코스피는 장중 2,675pt 선을 터치하면서 2023 년 8 월 중에 기록했던 장중 전고점(2,668pt)을 넘어선 상황. 일간, 주간, 월간 이동평균선을 봐도 저항선을 모두 상향 돌파하는 등 기술적으로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모습.

이처럼 추가 상승에 대한 낙관론이 우위인 국면에서는 밸류에이션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는 함. 이런 측면에서 코스피의 12개월 선형 PER밸류에이션을 체크해보면, 2일 종가 기준 10.7배로 집계. 현재 주가 레벨과 유사한 구간이자 작년 연 고점이었던 8월 당시의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11.5배 내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 수준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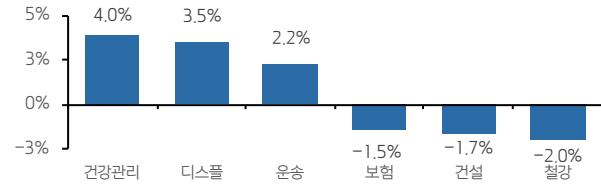
결국, 투자 심리 상 과열 분위기가 누적되고 있으며, 전일 미국 금리 급등, 나스닥 약세 등을 감안 시 단기적인 주가의 출렁거림이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임. 그렇지만, 상기 언급한 대로 2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률을 보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모멘텀 등 양호한 펀더멘털 환경, 높지 않은 밸류에이션 부담에 무게 중심을 더 많이 가져갈 필요. 변동성 관리 목적으로는 헤지가 필요하긴 해도, 중간중간 숨고르기 장세에서 과도한 주식 비중 축소는 자제.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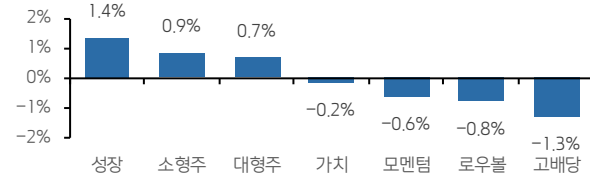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